

## 부산지역 중·고등학생의 패스트푸드 이용실태 조사

류은순<sup>1</sup> · 이경아<sup>2\*</sup> · 윤지영<sup>3</sup>

<sup>1</sup>부경대학교 식품생명공학부

<sup>2</sup>동부산대학 식품영양과

<sup>3</sup>경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The Fast Foods Consumption Patterns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Busan Area

Eun-Soon Lyu<sup>1</sup>, Kyung-A Lee<sup>2\*</sup> and Ji-Young Yoon<sup>3</sup>

<sup>1</sup>Faculty of Food Science & Biotechnolog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608-737, Korea

<sup>2</sup>Dept. of Food Nutrition, Dong-Pusan College, Busan 612-715, Korea

<sup>3</sup>Dept. of Food and Nutri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yeongnam-660-701,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st food consumption patterns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Busan.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Busan area were asked in a survey about their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s fast food (n=968, response rate: 92%). Most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consume fast food once a month because it is fast, easily accessible and tasty. Although they perceived fast food as unhealthy and less nutritious, they were less aware of its effect on their eating patterns: a clear indication of their limited knowledge on dietary impact. The more knowledgeable respondents were about nutrition and health, the less likely they were to choose fast food over other meals. However, respondents who had little or no knowledge about the nutritional factors of fast food accounted for 43.1%. Our study suggests that development of effective nutrition and health education is crucial to adolescent population. This study will enable educators to plan more effective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dietary knowledge of the adolescent population.

**Key words:** fast food, second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 and attitudes

### 서 론

1970년대의 경제개발 시작과 더불어 식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단순히 생존을 위해 먹는 기본적인 욕구에서 벗어나 교양 및 여가에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식소비지출이 증가하면서 많은 음식점들이 출현하였으며, 그 중 1977년과 1979년에 각각 림스치킨과 롯데리아에 의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아시안 게임(1986)과 서울올림픽(1988)을 거치면서 1990년 이후 소득의 증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생활양식의 변화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여건 변화로 식생활에서의 외식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외식시장은 연평균 11.7%라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패스트푸드업계는 KFC, 버거킹, 맥도날드 등 해외 외식브랜드가 국내시장에 상륙하면서 상위 8개 외식기업의 성장률이 1990년 이후 연평균 39.7%를 기록하였다(1). 이는 패스트푸드가 고객이 주문하면 먹기 간편하고 값싼 음식이 곧바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신속성으로

바쁘게 생활하는 현대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으며, 균일한 품질과 위생, 서비스, 기호성을 추구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franchising system)에 의한 쾌적하고, 깨끗한 점포 분위기와 색다른 맛으로 인해 그 이용도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2,3).

1997년 외환위기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업구조조정, 실업증가, 광우병·구제역·조류독감 등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가운데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도는 하락하였지만(4,5), 가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신세대 등 주요 젊은 고객층의 취향에 맞춘 지속적인 가격할인 경쟁을 통해 2002년 패스트푸드업계는 총매출이 1조6천여억원으로 여전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1). 미국 맥도날드사의 2004년도 3분기 순익이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42% 늘었다는 보도(6)와, 최근 국내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웰빙 트렌드를 반영해 한우 불고기버거와 호밀빵 새우버거, 샐러드류, 건강음료 등을 선보였으나 전통적인 햄버거류가 여전히 매출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도(7)는 최근의 웰빙 열풍 속에서도

\*Corresponding author. E-mail: kalee@dpc.ac.kr  
Phone: 82-51-540-3661. Fax: 82-51-540-3637

‘정크 푸드’로 인식돼 온 햄버거가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처럼 패스트푸드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기호성 위주로 선택되는 패스트푸드의 특성상 영양소 섭취의 불균형 현상을 일으켜 잠재적인 영양소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었다. 즉 패스트푸드는 열량과 포화지방산 및 나트륨 함량이 높으며 과일, 채소 등의 섭취 부족으로 인해 비타민, 무기질 등 미량영양소가 부족되기 쉬워 열량과잉과 영양불균형을 초래하여 소비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8-10). 특히 소비자층의 상당한 비율이 청소년이며(11,12), 중·고생의 54%가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패스트푸드이고(13), 맛과 간편성, 만남의 장소, 쾌적함 등으로 패스트푸드점을 선호하며(11,12,14-17), 최근 들어 식사용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17,18).

청소년기는 바쁜 일과에 쫓겨, 결식현상이 많아 간식과 매식예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영양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무조건 맛에 편중된 식품선택과 제한된 용돈 때문에 자연히 경제적이면서도 편이성과 기호면에 치우쳐 있는 패스트푸드의 선택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15,17). 이처럼 패스트푸드점을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균형된 영양소의 섭취문제와 나쁜 식습관형성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 예로 2002년 11월 미국에서는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 여러 건강상 문제가 있는 8명의 청소년들이 패스트푸드업체를 상대로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의 과다섭취로 인해 비만이 초래되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다(18).

그동안 패스트푸드에 대한 연구는 초등학교(19,20), 청소년(12,14-17), 대학생(21-24)들의 패스트푸드점 이용실태 및 식행동에 관해 꾸준히 수행되어 왔으나 부산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패스트푸드에 대한 견해, 선호도와 영양지식에 따른 이용,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고 이들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패스트푸드의 이용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영양교육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내용 및 방법

###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부산지역 5개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1개교씩 총 10개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중학교는 5개교 중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2학년 학생 110명씩 550명을, 고등학교는 5개교의 2학년 학생 각 100명씩 500명으로 총 1,05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자가 개발한 설문지를 각 학교의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배부하여 학생들이 설문지에 직접

기록하는 자가기록 방법을 이용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 중학생은 541부(회수율: 98.4%), 고등학생은 458부(회수율: 91.6%)이 회수되었으며 이중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한 후 설문지는 중학생 532부, 고등학생 435부로 총 968부를 통계처리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4년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수행하였다.

### 연구내용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기존의 문헌들(11,12,14,15,21)을 기초로 연구자가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설문문항은 32명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1월 초 예비조사를 한 후, 본 연구에 적용 가능하도록 수정 보완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내용은 일반사항으로는 성별, 용돈, 식사의 규칙성 등으로 구성하였고 패스트푸드 이용실태는 자주 이용하는 패스트푸드점, 패스트푸드의 이용횟수, 1회 섭취 정도, 패스트푸드를 선택하는 방법,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이유 등으로 구성하였다. 패스트푸드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도, 패스트푸드 음식의 한 끼 식사대용으로서의 적합함, 패스트푸드 영양에 대한 지식 등으로 구성하였고, 패스트푸드의 개선 요구사항은 가격, 메뉴 1인분 양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로는 패스트푸드의 이용실태는 개방형 질문문항을 이용하였고 패스트푸드에 대한 견해 측정은 Likert의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측정척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 통계처리 방법

통계처리는 SPSS V10.0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일반사항은 빈도 및 백분율을 이용하였고 중·고등학생을 독립변수로 하여 선호하는 패스트푸드점, 이용횟수, 패스트푸드 선택방법, 선호도 등의 종속변수와와의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도와 패스트푸드에 대한 지식정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패스트푸드 선택방법, 한 끼 식사로서의 적합함 등의 종속변수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교차분석을 이용하였다. 패스트푸드의 이용횟수, 선호도, 지식정도, 한 끼 식사로서의 적절함 등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 결과 및 고찰

###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Table 1에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조사대상 학생 총 968명 중에서 남학생은 44.0%, 여학생은 55.9%였고, 그 중 중학생은 55.5%, 고등학생은 44.5%였다. 조사대상자의 한 달 용돈은 '2만원~3만원'이 27.9%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중학생은 '1만원~2만원'이 29.5%, '2만원~3만원'이 25.9%이었고, 고등학생은 '2만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N (%)

Characteristics	Middle school	High school	Total
Gender			
Male	215 (40.4)	212 (48.6)	427 (44.0)
Female	317 (59.2)	224 (51.4)	541 (55.9)
Total	532 (55.5)	436 (44.5)	968 (100.0)
Allowance (₩)			
≤ 10,000	60 (12.6)	15 (4.0)	75 (8.8)
11,000~20,000	141 (29.5)	42 (11.2)	183 (21.5)
21,000~30,000	138 (29.0)	100 (26.7)	238 (27.9)
31,000~40,000	77 (16.1)	73 (19.4)	150 (17.6)
41,000~50,000	31 (12.8)	632 (16.6)	93 (10.4)
51,000~60,000	12 (2.5)	26 (6.9)	38 (4.5)
61,000~80,000	6 (1.3)	23 (6.2)	29 (3.4)
81,000~100,000	10 (2.1)	17 (4.5)	27 (3.2)
≥ 101,000	2 (0.4)	17 (4.5)	19 (2.2)
Total	477 (56.2)	372 (43.8)	849 (100.0)
Regularity of meals			
Regular	312 (59.8)	286 (68.4)	598 (63.6)
Irregular	210 (40.2)	132 (31.6)	342 (36.4)
Total	522 (55.5)	418 (44.5)	940 (100.0)

3만원'이 26.8%, '5만원 이상'이 21.5%로 고등학생이 용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의 규칙성에서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중학생은 40.2%, 고등학생은 31.6%가 '불규칙적이다'고 응답하여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더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Usage patterns of fast food restaurants

		Middle school			High school			Total
		Male	Female	Sub total	Male	Female	Sub total	
Favorite FFR <sup>1)</sup>	Hamburger	145 (69.0)	226 (73.6)	371 (71.8)	112 (56.0)	101 (47.0)	213 (51.3)	584 (62.7)
	Chicken	65 (31.0)	81 (26.4)	146 (28.2)	88 (44.0)	114 (53.0)	202 (48.7)	348 (37.3)
		NS <sup>2,3)</sup>			NS <sup>3)</sup>			932 (100.0)
		$\chi^2=41.087^{4)**}$						
Usage frequency of hamburger restaurant	Rarely	76 (37.3)	107 (34.7)	183 (35.7)	84 (42.6)	99 (49.3)	183 (46.0)	366 (40.2)
	1~3/month	110 (53.9)	179 (58.1)	289 (56.4)	91 (46.2)	90 (44.8)	181 (45.5)	470 (51.6)
	≥4/month	18 (8.8)	22 (7.1)	40 (7.8)	22 (11.2)	12 (6.0)	34 (8.5)	74 (8.1)
		NS			NS			910 (100.0)
		$\chi^2=11.198^{**}$						
Usage frequency of chicken restaurant	Rarely	56 (29.9)	80 (28.9)	136 (29.3)	65 (34.0)	51 (50.8)	116 (29.9)	252 (29.6)
	1~3/month	115 (61.5)	176 (63.5)	291 (62.7)	102 (53.4)	118 (59.9)	220 (56.7)	511 (60.0)
	≥4/month	16 (8.6)	21 (7.6)	37 (8.0)	24 (12.6)	28 (14.2)	52 (13.4)	89 (10.4)
		NS			NS			852 (100.0)
		$\chi^2=7.259^*$						
Amount of intake for onetime	Sufficient for a meal	72 (33.6)	107 (34)	179 (33.8)	96 (45.9)	104 (47.1)	200 (46.5)	379 (39.5)
	Sufficient for a snack	120 (56.1)	174 (55.2)	294 (55.6)	100 (47.8)	87 (39.4)	187 (43.5)	481 (50.2)
	Just beverage	22 (10.3)	34 (10.8)	56 (10.6)	13 (6.2)	30 (13.6)	43 (10.0)	99 (10.3)
		NS			$\chi^2=7.616^*$			959 (100.0)
		$\chi^2=16.630^{**}$						
Choice methods	Set menu	132 (62.0)	185 (59.7)	317 (60.6)	143 (71.5)	144 (66.4)	287 (68.8)	604 (64.3)
	Item by item	81 (38.0)	125 (40.3)	206 (39.4)	57 (28.5)	73 (33.6)	130 (31.2)	336 (35.7)
		$\chi^2=0.278$			$\chi^2=1.282$			940 (100.0)
		$\chi^2=6.814^{**}$						

<sup>1)</sup>FFR: fast food restaurants. <sup>2)</sup>NS: not significant.

<sup>3)</sup> $\chi^2$  results by gender of middle school & high school. <sup>4)</sup> $\chi^2$  result by school. \*p<0.05, \*\*p<0.01.

### 패스트푸드의 이용실태

Table 2에는 중·고등학생에 따른 패스트푸드 이용실태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선호하는 패스트푸드점은 조사대상자 전체의 62.7%, 중학생 71.8%, 고등학생 51.3%가 '햄버거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햄버거점을 유의적(p<0.01)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1,22)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25)에서 나타난 햄버거점>치킨점>피자점 순으로 선호하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56.0%가 '햄버거점'을 선호하는데 반해 여학생은 53.0%가 '치킨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적인(p<0.01) 차이를 보였다.

햄버거점을 이용하는 횟수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가 조사대상자 전체의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중학생은 '월 1~3회'가 56.4%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가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고등학생 간 유의적인(p<0.01) 차이를 보였다. 치킨점을 이용하는 횟수는 '월 1~3회'가 조사대상자 전체의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월 4회 이상'의 비율이 높았으며 유의적인(p<0.05) 차이를 보였다.

패스트푸드의 1회 섭취 정도는 '간식이 될 정도로 먹는다'가 조사대상자 전체의 5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에 따른 차이에서 중학생은 '간식이 될 정도로 먹는다'

다'가 55.6%로 가장 높게 반해, 고등학생은 '식사로 많이 먹는다'가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중·고등학생간의 유의적( $p<0.01$ ) 차이를 보였다.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패스트푸드 섭취실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의 56%가 간식이 될 정도로 먹는 것으로 나타났으나(14), 서울의 고등학생들은 패스트푸드를 한 끼 식사용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17) 대학생들도 식사가 될 정도로 많이 먹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23) 초등학교 또한 60%가 식사용으로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25)으로 보아 최근 들어 패스트푸드를 식사로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패스트푸드를 선택하는 방법에서 조사대상자의 64.3%가 '세트메뉴'를 선택하였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세트메뉴를 선택하는 비율이 유의적( $p<0.01$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17)과 초등학교에 대한 연구(25)에서도 학생들은 한번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 주로 3가지의 음식을 먹는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세트메뉴로 구입하는 경우, 가격이 저렴한 것도 그 이유라고 볼 수 있겠다.

패스트푸드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Fig. 1에 제시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중복응답 결과,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69.5%)', '음식이 맛있어서(53.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 모두 같은 경향을 보였다. 서울시내 중학생(15)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7)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장소이고 음식 먹기가 간편해서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 비교해보면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서울시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25)에서 조사대상자의 63.1%가 음식 맛이 좋아서라고 응답한 것과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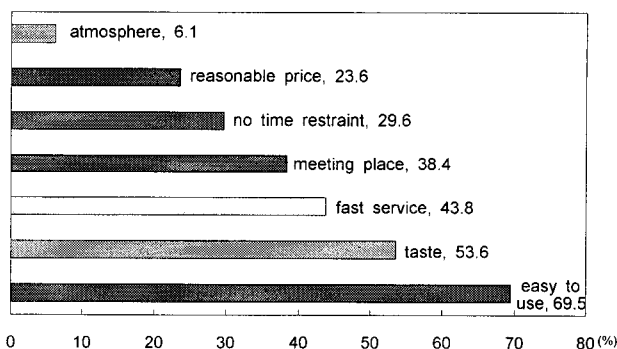


Fig. 1. Reason for using fast food restaurant. Multiple response.

패스트푸드에 대한 견해

중·고등학생에 따른 패스트푸드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도는 '좋아한다(47.4%)'와 '그저 그렇다(47.9%)'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결과는 청주시지역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연구(16)에서 대상자의 86.5%가 보통 이상의 선호도를 보인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패스트푸드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는 여전히 보통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중·고등학생에 따른 차이에서, 중학생은 '좋아한다(53.0%)'가 높게 나타난 반면, 고등학생은 '그저 그렇다(51.9%)'가 높게 나타나 중·고등학생 간 유의적인( $p<0.01$ ) 차이를 보였다.

패스트푸드 음식이 한 끼 식사대용으로 적당함에 대해서, 중·고등학생 모두에서 '적당하다 42.8%'와 '그저 그렇다 32.2%'가 높게 나와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며 이 중 고등학생의 경우는 여학생은 식사로 '적당하다(50.9%)', 남학생은 '적당하지 않다(34.5%)'가 높게 나타나 남녀 간의 유의적인( $p<0.01$ ) 차이를 보였다. 소도시의 패스트푸드 섭취실태에

Table 3. Opinions of fast food

		Middle school			High school			Total
		Male	Female	Sub total	Male	Female	Sub total	
Preferences	Dislike	6 (2.8)	6 (1.9)	12 (2.3)	15 (6.7)	19 (8.6)	33 (7.6)	45 (4.7)
	Neither/nor	83 (39.0)	153 (48.6)	236 (44.7)	106 (50.5)	118 (53.2)	224 (51.9)	460 (47.9)
	Like	124 (58.1)	156 (49.5)	280 (53.0)	90 (42.8)	85 (38.8)	175 (40.5)	455 (47.4)
		NS <sup>2,3)</sup>			NS <sup>3)</sup>			960 (100.0)
$\chi^2=25.723^{(1)**}$								
Proper amount for one meal	Inadequate	64 (30.0)	60 (19.3)	124 (23.5)	70 (34.5)	42 (19.2)	112 (26.7)	236 (25.0)
	Neither/nor	63 (29.6)	111 (35.6)	174 (33.1)	66 (32.5)	65 (29.8)	131 (31.1)	305 (32.2)
	Adequate	86 (40.4)	142 (45.2)	227 (43.2)	67 (33.0)	111 (50.9)	178 (42.2)	405 (42.8)
		$\chi^2=11.009^{**}$			$\chi^2=20.798^{**}$			946 (100.0)
NS								
Nutrition knowledge about FF <sup>1)</sup>	Extensive	45 (21.2)	59 (19.1)	104 (19.9)	36 (17.7)	31 (14.4)	67 (16.0)	171 (18.1)
	Aaverage	66 (31.1)	130 (42.1)	196 (37.6)	74 (36.3)	95 (44.0)	169 (40.2)	365 (38.8)
	Little	101 (47.6)	120 (38.8)	221 (42.5)	94 (46.0)	90 (41.7)	184 (43.8)	405 (43.1)
		NS			NS			941 (100.0)
NS								

<sup>1)</sup>FF: fast food. <sup>2)</sup>NS: not significant.

<sup>3)</sup> $\chi^2$  results by gender of middle school & high school. <sup>4)</sup> $\chi^2$  result by school. <sup>\*\*</sup> $p<0.01$ .

관한 연구(26)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식사대용의 가능성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울산지역 대학생에 대한 연구(22)에서도 여학생은 식사로서 충분하다고 하였으나 남학생은 불충분하다고 답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패스트푸드에 대한 영양 지식정도에 대해, 지식이 '적다'는 43.1%, '보통이다'는 38.8%로 나타나 청소년 상당수가 패스트푸드 선택 시 영양과 건강을 고려할 기본적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등학생들은 패스트푸드 주문 시 과반수의 학생이 영양균형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14), 영양보다는 맛과 가격을 우선 고려하여 선택한다는 연구(16)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학교와 가정에서 패스트푸드에 대한 영양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패스트푸드의 선호도에 따른 패스트푸드 이용 및 견해

Table 4에는 패스트푸드의 선호도에 따른 패스트푸드 이

용 및 견해에 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선호하는 패스트푸드 집에 대해 패스트푸드 선호군은 '햄버거점'이 66.2%, 보통군과 비선호군은 '치킨점'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39.2%, 54.1%이며 관찰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고 유의적인( $p < 0.05$ ) 차이를 보였다. 이는 대학생(22)과 고등학생(17)에 대한 조사에서 햄버거 > 치킨 > 피자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패스트푸드점 유형별 이용횟수를 살펴보면, 햄버거점의 이용횟수에서는 패스트푸드 선호군은 '월 1~3회'가 60.1%, 보통군과 비선호군은 '거의 이용 안한다'가 각각 49.0%, 81.8%이며 관찰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고 유의적인( $p < 0.01$ ) 차이를 보였다. 치킨점의 이용횟수도 패스트푸드 선호군은 '월 1~3회'가 62.8%, 보통군과 비선호군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가 33.8%, 50.0%로 관찰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p < 0.01$ ) 차이를 보였다.

패스트푸드의 한 끼 식사대용의 적당함에서, 선호군은 '적당하다'가 52.2%, 보통군은 '그저 그렇다'가 36.2%, 비선호군은 '적당하지 않다'가 44.4%로 관찰치가 기대치보다 높았으

Table 4. Usage and opinion of fast foods by preference

		Preference for fast food			
		Like	Neither/nor	Dislike	
Favorite FFR <sup>1)</sup>	Hamburger	# <sup>2)</sup> 296 (66.2)	271 (60.8)	17 (45.9)	584 (62.8)
	Chicken	151 (33.8)	#175 (39.2)	#20 (54.1)	346 (37.2)
		$\chi^2=7.528^*$			930 (100.0)
Usage frequency of hamburger restaurant	Rarely	112 (26.3)	#213 (49.0)	#36 (81.8)	361 (39.9)
	1~3/month	256 (60.1)	258 (47.8)	6 (13.6)	470 (51.9)
	≥4/month	#58 (13.6)	14 (3.2)	2 (4.6)	74 (8.2)
		$\chi^2=107.808^{**}$			905 (100.0)
Usage frequency of chicken restaurant	Rarely	94 (23.0)	#134 (33.8)	#21 (50.0)	249 (29.4)
	1~3/month	#256 (62.8)	235 (59.2)	18 (42.8)	509 (60.1)
	≥4/month	58 (14.2)	28 (7.0)	3 (7.2)	89 (10.5)
		$\chi^2=36.697^{**}$			847 (100.0)
Proper amount for one meal	Inadequate	87 (19.4)	126 (28.1)	#20 (44.4)	233 (24.8)
	Neither/nor	127 (28.3)	#162 (36.2)	15 (33.3)	304 (32.3)
	Adequate	#234 (52.2)	160 (35.7)	10 (22.2)	404 (42.9)
		$\chi^2=37.455^{**}$			941 (100.0)
Amount of intake for one time	Sufficient for a meal	#223 (49.2)	146 (31.9)	9 (20.0)	378 (39.5)
	Sufficient for a snack	214 (47.2)	#244 (53.3)	21 (46.7)	479 (50.1)
	Just beverage	16 (3.5)	68 (14.8)	#15 (33.3)	99 (10.4)
		$\chi^2=75.898^{**}$			956 (100.0)
Choice methods	Set menu	#321 (71.8)	257 (57.8)	23 (51.1)	601 (64.1)
	Item by item	126 (28.2)	#188 (42.2)	#22 (48.9)	336 (35.9)
		$\chi^2=22.654^{**}$			937 (100.0)
Nutrition knowledge about FF	Much	77 (17.3)	81 (18.2)	#11 (24.4)	169 (18.1)
	Moderate	165 (37.1)	#181 (40.6)	18 (40.0)	364 (38.9)
	Little	#203 (45.6)	184 (41.3)	16 (35.6)	403 (43.1)
		NS <sup>3)</sup>			936 (100.0)
Regularity of meals	Regular	260 (58.4)	#302 (67.6)	#34 (75.6)	596 (63.6)
	Irregular	#185 (41.6)	145 (32.4)	11 (24.4)	341 (36.4)
		$\chi^2=10.953^{**}$			937 (100.0)

<sup>1)</sup>FFR: fast food restaurants. <sup>2)</sup>#: Observed value > Expected value.

<sup>3)</sup>NS: not significant. \* $p < 0.05$ , \*\* $p < 0.01$ .

며 유의적인(p<0.01) 차이를 보여 선호군이 식사대용으로 패스트푸드가 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의 1회 섭취하는 정도에 대해서, 선호군의 경우 '한 끼 식사가 될 정도로 먹는다'가 49.2%, 보통군은 '간식이 될 정도로만 먹는다'가 53.3%, 비선호군은 '음료수 정도만 먹는다'가 33.3%로 관찰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적인(p<0.01) 차이를 보여 선호군이 패스트푸드의 1회 섭취량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패스트푸드 선택방법에서는 선호군은 '세트메뉴'를 선택한다는 의견이 71.8%, 보통군과 비선호군은 '원하는 것 한가지씩' 선택한다는 의견이 각각 42.2%, 48.9%로 관찰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적인(p<0.01)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선호군의 경우 세트메뉴 선택 시 1회에 식사가 될 만큼 많은 양의 패스트푸드를 섭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등학생(17)과 초등학생(25)에 대한 연구에서도 식사용으로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반면 광주지역 초등학생의 경우(19), 선호군일수록 식사용보다 간식용으로 패스트푸드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패스트푸드에 대한 영양지식 정도에서, 선호군은 '적다'가 45.6%, 보통군은 '보통이다'가 40.6%, 비선호군은 '많다'가 24.4%로 관찰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패스트푸드를 선호하는 학생은 패스트푸드에 대한 영양지식이 스스로가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 비율이 높고 패스트푸드를 선호하지 않는 학생들은 영양지식이 스스로 적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게 나왔다. 따라서 패스트푸드에 대한 영양지식이 학생들이 패스트푸드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패스트푸드의 영양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어진다.

식사의 규칙성에서는 선호군은 '불규칙하다'가 41.6%, 보통군과 비선호군은 '규칙적이다'가 각각 67.6%, 75.6%로 관

찰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적인(p<0.01) 차이를 보여 초등학생에 대한 연구(19)결과와 유사하였다. 중학생의 식습관에 대한 연구(15)에서는 조사대상자의 34.3%가 식사가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났고, 간식빈도에서는 93.9%가 간식을 하며 하루에 한번 이상 간식하는 학생이 70.7%이었고 간식을 많이 먹어서 식사를 거른 적이 거의 없다가 56.6%, 1주일에 1~2회가 30.6%로 나타났다. 이처럼 식사전의 간식섭취는 정규식사에 영향을 주어 보다 영양적으로 균형된 식품의 섭취 기회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기호 중심의 간식 선택으로 인해 간식을 통한 영양공급 효과도 감소시키므로 간식의 빈도와 간식 식품 선택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더불어 패스트푸드를 한 끼 식사로 대응하려는 경향이 점차 증가 추세이므로 소비자에게 한 끼 식사로 선택 시 염려되는 열량, 포화지방산 및 나트륨의 과다와 비타민, 무기질 등 미량영양소 부족 등의 영양불균형(8,10)과 함께 영양균형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학교나 가정에서 영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패스트푸드의 영양지식 정도에 따른 패스트푸드의 이용

Table 5에는 패스트푸드에 대한 영양지식에 따른 패스트푸드 이용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회 섭취하는 정도에서, 패스트푸드에 대한 영양지식이 많은 군은 '음료수 정도만 먹는다'가 13.0%, 보통군은 '간식이 될 정도로만 먹는다'가 52.8%, 영양지식이 적은 군은 '한 끼 식사가 될 정도로 먹는다'가 43.6%로 관찰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패스트푸드에 대한 영양지식이 낮은 학생이 1회 패스트푸드의 섭취량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패스트푸드 선택방법에서는 영양지식이 많은 군과 적은 군은 '원하는 것 한가지씩'이 각각 37.6%, 36.3%이며, 보통군은 '세트메뉴'가 65.7%로 관찰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 끼 식사대용의 적

Table 5. Usage and opinion of fast foods by nutrition knowledge

		Nutrition knowledge of fast food			Total
		Much	Moderate	Little	
Amount of intake for one time	Sufficient for a meal	60 (35.5)	135 (37.3)	#176 (43.6)	371 (39.7)
	Sufficient for a snack	87 (51.5)	#191 (52.8)	190 (47.0)	468 (50.1)
	Just beverage	#122 (13.0)	36 (9.0)	38 (9.4)	96 (10.3)
		NS <sup>2)</sup>			935 (100.0)
Choice methods	Set menu	106 (62.4)	#237 (65.7)	254 (63.7)	597 (64.2)
	Item by item	#64 (37.6)	124 (34.3)	#145 (36.3)	333 (35.8)
		NS			930 (100.0)
Proper amount for one meal	Inadequate	44 (25.9)	82 (28.1)	#108 (26.9)	233 (24.8)
	Neither/nor	40 (23.5)	#143 (39.2)	119 (29.6)	304 (32.3)
	Adequate	#86 (50.6)	140 (38.4)	175 (43.5)	404 (42.9)
		$\chi^2=16.017^{**}$			937 (100.0)

<sup>1)</sup>#: Observed value>Expected value. <sup>2)</sup>NS: not significant. <sup>\*\*</sup>p<0.01.

Table 6. Correlation among usage and opinion of fast foods

	Usage frequency	Preference	Nutrition knowledge	Proper amount for one meal
Usage frequency	1.000	0.329**	-0.002	0.069*
Preference		1.000	-0.083*	0.165**
Nutrition knowledge			1.000	0.066*
Proper amount for one meal				1.000

\*p<0.05, \*\*p<0.01.

당함에서 영양지식이 많은 군은 '적당하다'가 50.6%, 보통군은 '그저 그렇다'가 39.2%, 영양지식이 적은 군은 '적당하지 않다'가 26.9%로 관찰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적인(p<0.01) 차이를 보였다.

패스트푸드의 영양에 관한 소비자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27)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패스트푸드 구입 시 영양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영양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스스로 영양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패스트푸드가 한 끼 식사로 적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패스트푸드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패스트푸드의 개선에 대한 요망사항

Fig. 2에는 패스트푸드 이용 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중복질문 결과를 제시하였다. 개선점에 대해 대상자 전체, 중·고등학생 간 모두에서 '가격을 낮추었으면(74.7%)', '기름기가 적었으면(58.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의 개선점에 대한 연구 중 서울시내 고등학생에 대한 연구(11)에서는 '음식의 가격을 낮추었으면' > '위생상태가 청결했으면' 순으로 나타났으며, 광주지역의 중·고등학생에 대한 연구(14)에서는 '가격을 낮추었으면' > '1인 분량을 더 많이 주었으면' 순으로 나타났고 초등학생에 대한 연구(20)에서는 '가격을 낮추었으면' > '메뉴가 다양했으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모든 청소년층에서 가격저하를 제시하여 패스트푸드가 청소년에게는 가격 면에서 부담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상당수는 패스트푸드의 '기름기가 적었으면(58.7%)'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다수의 대학생들(77%)이 패스트푸드로 인해 지방섭취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며(12) 식습관의 변화 중 지방섭취의 증가를 느낀다고 답한 연구(24)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체중조절을 위해 기름기가 많은 패스트푸드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 패스트푸드의 경우 총 지방섭취가 매우 높고 그 중 포화지방산의 섭취도 매우 많기 때문에 섭취 지방산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28)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푸드를 자주 이용할수록 기름종류(식물성, 동물성)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영양 지식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22). 따라서 단순히 기름기 많은 음식만 피하면 된다는 잘못된 영양지식이 아니라 균형된 식사선택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영양정보 제공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패스트푸드의 이용과 견해의 상관관계

햄버거 이용횟수, 패스트푸드 선호도, 영양지식, 식사대용의 적합성 등의 변수 간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햄버거 이용횟수는 패스트푸드 선호도(p<0.01), 식사대용의 적합성(p<0.05)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패스트푸드를 선호하고, 식사대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식할수록 햄버거점 이용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 선호도는 영양지식과는 유의적(p<0.05)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식사대용의 적합성과는 유의적(p<0.01)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패스트푸드를 선호할수록 패스트푸드에 대한 영양지식은 적은 반면 식사대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에 대한 영양지식은 식사대용의 적합성과 유의적(p<0.05)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영양지식이 많을수록 식사대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와 함께 패스트푸드를 식사대용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패스트푸드 선택 시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도록 영양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요 약

본 연구는 부산지역 중·고등학생(중학생 532명, 고등학생 436명) 968명을 대상으로 패스트푸드에 대한 견해, 선호도와 영양지식에 따른 이용, 개선사항 등을 설문지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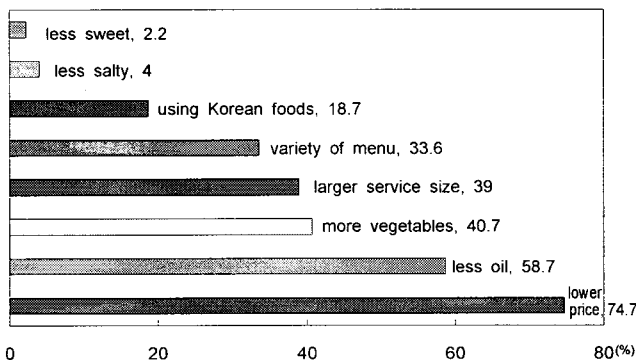


Fig. 2. Demands for fast foods. Multiple response.

조사하였다. 패스트푸드 이용실태에서 조사대상자들은 햄버거점을 선호하였고 이용횟수는 '월 1~4회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주로 '세트메뉴'를 선택하고 '간식용으로 먹는다'는 비율이 높았다. 패스트푸드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중·고등학생 모두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 '음식의 맛이 있어서' 순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 선호도에 대한 견해에서 '좋아한다(47.4%)'와 '그저 그렇다(47.9%)' 등 대상자의 95%가 보통이상의 선호도를 보였으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선호도가 유의적( $p < 0.01$ )으로 높게 나타났다. '패스트푸드 음식이 한 끼 식사로 적당하다(42.8%)'는 견해와 '패스트푸드에 대한 영양 지식정도가 적다(43.1%)'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의 선호군일수록 패스트푸드 이용횟수가 많고 한 끼 식사로 적당하다고 인식하며 세트메뉴를 선택하고 식사가 불규칙한 비율이 유의적( $p < 0.01$ )으로 높았다. 패스트푸드에 대한 영양지식이 많은 군이 한 끼 식사로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유의적( $p < 0.01$ )으로 높았다. 패스트푸드에 대한 개선사항에서는 '가격을 낮추었으면' > '기름기가 적었으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의 이용과 견해의 상관관계에서 패스트푸드를 선호할수록 패스트푸드에 대한 영양지식은 적은 반면 식사대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식하며 이용횟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패스트푸드를 식사대용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패스트푸드에 대한 영양지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영양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의 글

본 연구의 수행은 부경대학교 시행한 2004년 신입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결과의 일부로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 문 헌

1. 한경수, 채인숙, 김경환. 2005. 외식경영학. 교문사, 서울. p 34-66.
2. Lyu ES, Kwak TK. 1989. Consumer opinions on fast foods and foodservice- I. Hamburger chain restaurants. *Korean J Dietary Culture* 4: 229-236.
3. 광동경. 1994. 패스트푸드업체의 급식경영실태 및 발전방향. 한국식생활문화학회 춘계학술심포지움 자료집. p 13-31.
4. 고남희. 2005. 설문조사로 본 소비자 외식성향. 월간식당 5월호. p 174-178.
5. 식품외식경제신문. 2005. 패스트푸드의 결산 및 전망. 12월29일자.
6. 한국경제. 2004. 맥도날드 '화려한 부활'. 10월20일자.

7. 연합뉴스. 2005. 햄버거는 웰빙 안 통하네. 9월21일자.
8. Appledorf H, Kelly LS. 1979. Proximate and mineral content of fast food. *J Am Dietet Assoc* 74: 35-40.
9. Shannon BM, Parks SC. 1980. Fast foods: A perspective on their nutritional impact. *J Am Dietet Assoc* 76: 242-247.
10. Ries CP, Kline K, Weaver SO. 1987. Impact of commercial eating on nutrient adequacy. *J Am Dietet Assoc* 87: 463-468.
11. Jeon MJ, Kim BH, Lee KS, Mo SM. 1990. A survey of fast food dining out behaviors. *Korean J Home Economics Assoc* 28: 15-29.
12. Sim KH, Kim SA. 1993. Utilization state of fast-foods Korean youth in big cities. *Korean J Nutr* 26: 804-811.
13. 동아일보. 1995. 연령별 fast food점 이용률. 12월21일자.
14. Kim KA, Cho SH. 1994. A survey on consciousnes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using fast food restaurants in Kwangju.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4: 27-37.
15. Cho JM, Han YB. 1996. Dietary behavior and fast-foods use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Korean J Home Economics Educ Assoc* 8: 105-119.
16. Kim EC. 1996. The research on the preference of fast food store. *M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Korea. p 36-41.
17. Jeong JH, Kim SH. 2001. A survey of dietary behavior and fast food consumption by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Korean J Home Economics Assoc* 39: 111-124.
18. 중앙일보. 2002. 미국서 첫 패스트푸드 건강피해 소송. 11월22일자.
19. Lee SS. 2004. A study on dietary behavior of children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s for fast food. *Korean J Comm Nutr* 9: 204-213.
20. Lee SS. 2002. The consumption patterns of the fast foods by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 Soc Practical Arts Edu* 15: 121-136.
21. Kim KW, Shin EM, Moon EH. 2004. A study on fast food consumption, nutritional knowledge, food behavior and dietary intake of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Dietetic Assoc* 10: 13-24.
22. Kim HK. 1996. Fast food consumption patterns of college students in Ulsan. *Korean J Dietary Culture* 11: 131-141.
23. Yoon HJ, Wi SU. 1994. A survey of college student behaviors on fast food restaurants. *J Korean Soc Food Sci Nutr* 7: 323-331.
24. You DR, Park GS, Kim SY, Kim HH, Lee SJ. 2000. Fast food consumption patterns-focused on college students in Taegu · Kyungbuk. *Korean J Home Economics Assoc* 38: 27-40.
25. 최난주. 2003. 패스트푸드의 영양함량 및 섭취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소비자보호원. p 13-27.
26. Park MR, Kim SH, Wi SU. 1999. The consumption patterns of fast food in small cities. *Korean J Dietary Culture* 14: 139-146.
27. Kwak TK, Lyu ES, Nam SR, Lee HS, Kim SH, Moon HK, Joo SY. 1991. Nutritional concerns for fast foods by consumer and fast foods franchisors, and evaluation of nutrient adequacy. *Korean J Soc Food Cookery Sci* 7: 37-46.
28. Kim NS, Kim SA. 1994. Analysis of lipid composition in various fast-foods. *Korean J Soc Food Cookery Sci* 10: 131-137.

(2006년 2월 27일 접수; 2006년 4월 5일 채택)